



보도	2026.3.4.(수) 14:00	배포	2026.3.4.(수)		
담당부서	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2팀	책임자	팀 장	심여희	(02-3145-8235)
		담당자	선 임	김주희	(02-3145-8237)
	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용진	(02-3145-7602)
		담당자	선 임	오수경	(02-3145-7603)

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최

I 개요

- '26.3.4.(수)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증가*하는 가운데 관련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

* 해외 사모대출펀드 국내투자자 판매잔액 및 증가율 (주요 12개 증권사 집계)
: ('23년말) 11.8조원 → ('24년말) 13.8조원 (+16.8%) → ('25년말) 17.0조원 (+23.0%)

※ 특히, 개인 판매잔액은 '23년말 1,154억원에서 '25년말 4,797억원으로 약 3.2배 증가

- 동 간담회를 통해,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강조하고
-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계·판매 쉐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였음

< 해외 사모대출펀드 증권사 간담회 개요 >

- ☑ (일 시) 2026. 3. 4.(수) 14:00 ~ 15:00
- ☑ (장 소) 금융투자협회 13층 제1강의실
- ☑ (참석자)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김욱배 부원장보, 소비자피해예방국 임권순 선임국장, 자본시장감독국 박시문 국장
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 및 CCO 약 20명 등

II 주요 논의 내용

- 금융감독원 김욱배 부원장보는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①정보 불투명, ②위험 과소평가, ③국내 통제력 한계 등을 제시

< 해외 사모대출펀드 주요 리스크 요인 >

- ☑ **(정보 불투명)**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비 **완화된 조건**의 대출을 취급하는 해외 사모대출펀드 특성상 **차주의 건전성 악화**를 사전에 **파악하기 곤란**
- ☑ **(위험 과소평가)**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**위험 측정 방식 한계***로 수익 대비 위험이 **과소평가**되면서 **중위험·중수익** 상품으로 왜곡될 소지
 - * 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 변동성(표준편차)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고, 가격 변동성 또한 긴 평가주기, 주관적 가치평가 등으로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
- ☑ **(국내 통제력 한계)** 재간접 형태로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**대출채권 선별·위기대응** 등 주요 의사결정에 국내 금융회사의 **개입 제한**

- 아울러, 증권사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때 금융소비자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자본시장 성장 및 증권 산업의 장기적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

- 해외 피투자펀드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입수 체계를 강화하고 입수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적시 안내하는 한편,
- 상품설명서 및 판매직원 설명 스크립트 등에 투자자 오인 유발 문구*가 있는지 살피고, 주요 리스크 요인 보다 수익성(월배당, 高수익률 등)이 강조되지 않도록 판매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당부

* (예) 사모자산은 공모자산 보다 수익성은 높고 변동성은 낮음, 사모자산은 공모자산 대비 매력적인 위험 대비 수익률 등

- 또한, 해외 사모대출펀드 주요 산업군별 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위험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

-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안을 재점검하는 한편 사전에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것을 지도

- 참석자들은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리스크에 공감하면서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입수 체계 강화를 통한 투자자 적시 안내 및 판매절차 자체점검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,
 - 해외 사모대출펀드 주요 산업군별 건전성 분석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안 재점검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
- 마지막으로 김옥배 부원장보는 주요 증권사 CCO에게 미-이란 전쟁 및 해외 사모대출시장 불안 등 글로벌 정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
 -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음

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 및 투자자 설명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
 -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